

손상적 부-자녀관계가 대상적 자기손상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모래상자치료 사례 연구

강민정¹⁾·이복순²⁾·정민³⁾

The Effect of Impaired Father-Child Relationships on impaired objective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A case study of Sandtray therapy in College Students

Min-jung Kang, Bok-sun Lee, Min Jeong

요 약

본 연구는 손상적 부-자녀관계를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래상자치료를 적용한 사례이다. 내담자는 어려서 아버지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게 되면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여전히 대인관계 어려움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래상자치료는 1주일에 1회씩 총 10회기를 진행하였다. 모래상자치료 결과, 첫째, 치료 과정에서 초기, 중기, 후기 단계를 거치면서 일상, 긴장감과 갈등, 변화 단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내담자이 대상적 자기손상이 회복되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부족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변화되었다. 둘째,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함께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사례연구는 모래상자치료가 손상된 부-자녀 관계를 경험한 대학생의 대상적 자기손상과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대학생, 손상적 부-자녀관계, 대상적 자기손상, 대인관계, 모래상자치료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sandtray therapy to a college student who has experienced a impaired father-child relationship. The client went to college as he experienced bullying at school and had problem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ue to his father's neglect and abuse, but he still had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negative self-concept, and thus proceeded with counseling. Sandtray therapy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a total of 10 sessions. As a result of sandtray therapy, first, daily life, tension & conflict, and

1) 광주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대학원 박사

2) 길벗심리상담연구소 소장

3) 교신저자: 광주대학교 교수(E-mail: saiyoongj@gwangju.ac.kr)

change stages were shown through the early, mid, and late stages of treatment. Through these steps, the client's impaired objective self has recovered. It has changed to a stage where he can accept himself that lacks negative thoughts and feelings about himself. Second, making friends led to positive 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e made a friend and participated in various activities at university together. This cas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been proven to be effective in impaired objective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college student who have experienced a impaired father-child relationship.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Key words: College student, Impaired father-child relationships, Impaired objective 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ndtray therapy

1. 서론

여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2년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현황을 살펴보면(여성가족부, 2024) 상담 내용의 1순위는 대인관계 1,488,241명, 2순위는 정신건강 1,327,213명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부 통계 데이터에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므로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들도 포함된다. 상담 내용과 관련된 이와 같은 순위는 해마다 거의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다.

대인관계 문제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래들과의 관계로 확장되고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로 청소년에게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경우 우울, 불안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 중도 탈락, 사회 진출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생은 사회 진출을 통한 사회 및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을 밝혀 대학생에 도우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인관계 문제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기술 부족(홍세훈, 2021), 부모-자녀 관계 문제(윤태교, 이지민, 2017), 성격장애(최희숙, 주영아, 2020)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의 다양한 원인 중 부-자녀 관계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 시절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면, 부-자녀 관계와 모-자녀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부-자녀 간의 애착유형과 모-자녀 간의 애착유형은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Bowlby, 1988)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므로(Main & Weston, 1981) 각각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모-자녀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양육자로서 어머니는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어머니와 갈등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고(권연희, 박경자, 2003),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이기도 한다(오옥선, 2019).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 친족 체계의 약화 등 가족 체계의 다양화로 인해 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Noh, 2007). 부-자녀 관계에 신뢰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고 (Cooper, 2009) 대인관계 문제가 적게 발생함을 보고하고 있다(이문희, 2018). 또한 부-자녀 관계는 주도성, 자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Target & Fonagy, 2003). 하지만 부-자녀 관계가 자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모-자녀 관계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부-자녀 관계는 자녀의 자기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권석만, 1996)으로 부-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안지영, 홍혜영, 2022). 자기개념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상적 자기손상이 있다. 대상적 자기손상은 자기개념 또는 자기표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자기이며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개념을 의미한다(Harter, 1999). 대상적 자기손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자기비난과 자기증오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내재화함으로써 자기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 자녀는 자기 형성과정에서 손상을 입게 되어 취약하고 손상된 자기로 남게 된다. 특히 부모 자녀관계에서 학대경험은 자기체계의 손상을 야기하게 된다. 이문희(2018)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부-자녀관계와 대상적 자기손상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린 시절 부정적인 부-자녀관계 경험이 높을수록 대상적 자기손상 또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적 자기손상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친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Han, 2010), 대인관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이문희,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자녀관계가 대상적 자기손상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래상자치료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모래상자치료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되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주로 심리적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며,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갈등이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이다.

모래상자치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내담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고 감정적 해소를 도울 수 있으며 모래상자 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내담자는 자아를 이해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가 직접 모래와 피규어를 조작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상징적 작업을 통해 삶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모래상자치료의 효과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모래상자치료는 여러 심리적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희와 이세화(2024)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모래상자치료를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래상자치료가 자기개념을 증진시킴을 보고한 김수경(2013), 김귀남, 김현주(2011)의 연구가 있다. 조원과 박성민(202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래상자치료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고했다. 또한, 유수연(2015)은 알코올중독자 아버지를 둔 아동의 불안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감소에도 모래상자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래상자치료가 대상적 자기손상

을 치료하고,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손상적 부-자녀 관계를 경험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대상적 자기손상과 대인관계의 변화 효과를 살펴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모래상자 치료과정에서 대상적 자기손상과 대인관계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20세 남자대학생으로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누나는 결혼하여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내담자와 어머니, 누나와의 관계는 친밀하다. 그러나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은 서로 연락을 단절한 채로 지내고 있다.

부모님이 내담자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신 후 아버지가 내담자와 누나의 양육을 맡기로 했지만 방임하고 학대하여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 후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초등학교 때 왕따와 학폭을 경험하였고 중학교 때 살이 많이 찌면서 다시 왕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친구들과 관계를 힘들어하고 있다.

2.2. 심리검사 결과

척도	VRIN	TRIN	F	F(B)	F(P)	FBS	L	K	S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T	48	53T	55	49	47	66	50	46	46	54	62	56	44	87	58	80	67	58	67

MMPI-2 검사결과 타당도에 문제는 없으나 FBS(증상타당도)가 66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화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K(교정척도)값은 46점으로 낮게 나와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척도에서는 Pt(강박증)이 80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Sc(조현병)과 Si(사회적 내향성)이 67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담자가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 타인들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 등을 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스스로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우울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Mf(남성성-여성성) 척도 값이 가장 높은 87점을 나타냈으나 이는 임상 병리적인 값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소 여성적인 측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3. 사례개념화

내담자의 호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고 스스로 항상 못난 사람 같아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어려서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의 방임과 학대 경험으로 인해 의식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한 의복으로 인해 왕따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부정적인 경험을 초, 중, 고에서 반복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나 자기표현 방법 등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고 살찐 외모로 인한 콤플렉스 등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를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30kg를 감량하면서 외모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성취 경험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상담 목표로 친구 사귀기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설정하고 모래상자치료와 인지 치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4. 모래상자치료 상담과정 내용의 요약

1) 진행 회기: 2022년 2월 5일 ~ 2022년 4월 2일 총 10회기 진행

<표 2-1> 상담 과정

단계	상담회기	주제	내용
초기	1회기~3회기	일상	- 가족과 중학교 수학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와의 행복한 일상을 꿈꿈 - 해야할 일들로 채워진 일상
중기	4회기~7회기	긴장감과 갈등	- 친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 - 엄마에 대한 의존과 독립
후기	8회기~10회기	변화	- 친구와 산책 - 친구와 함께 즐거운 일상 - 많고 싶은 친구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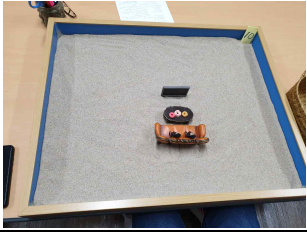
3.1. 모래상자치료를 통한 변화과정

모래상자치료 본 연구 결과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나타난 내담자의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타났다. 초기단계는 1회기에서 3회기까지로 ‘일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중학교 학원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가 나와 다른 공간에 있으나 사람 피규어는 모래상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상이 공부로 채워진 주인공이 3회기에 사람 피규어로 처음 등장하고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존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인관계를 표현하고 싶으나 아직은 모래상자에 등

<표 3-2> 중기 단계

회기	제목	사진	상자이야기
4	내가 바라는 희망		• 두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친구나 동료 같은 동아리 친구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이 나고 왼쪽은 친구다. 친구는 지금 이 시간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리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진지한 자리예요. 사람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친구가 부럽다. 초등학교 3학년때 따돌림 당했던 사건이 떠오름.
5	행복한 시간		•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주체성이 없었다. 지금은 문제가 뭔지 알겠으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엄마의 공간과 나의 공간을 분리하고 싶었다. 엄마랑 아들이 대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눈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서로 대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자는 여가시간이니까 게임을 하려 하는 것 같다. 잠잘 때가 가장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함께 보내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 해 봐서 어렵고 힘들다.

<표 3-3> 후기 단계

회기	제목	사진	상자이야기
8	친구		• 개강하고 친구가 생겼다. 많이 걱정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친구가 생겨서 함께 PC방도 가고 같이 걸으면서 수다를 떨었다. 집 근처 까지 걸었고, 주로 게임 얘기도 하고, 그냥 잡담 같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했다. 친구랑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남자 친구이고 키도 비슷하고 닮은 점도 많은 것 같았다. 원하는 것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까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번 주에는 엄마랑 화해도 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다. 앞으로는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9	노래방에서 친구와 함께		• 어제 친구를 만나 친구랑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갔다. 소품에 마이크가 없어서 기타를 놓았음. 친구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여곡절이 많기는 했지만 친구 한명 사귀기 상담목표가 이루어 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10	닮고 싶은 친구		• 나랑 친구랑 쇼파에 앉아서 티비를 보면서 쉬고 있다. 우리집 거실인 것 같다. 간식을 먹으면서 티비를 보면서 쉬고 있다. 서로 닮았다. 쌍둥이 같다는 느낌이 든다. 닮은점이 많기도 했고 닮아지고 싶은 면도 있는 것 같다. 비슷한 것을 놓은 걸 보면 내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 그 친구는 고민을 잘 들어준다.

4. 논의

본 연구는 어린 시절 방임과 학대로 인해 손상적 부-자녀 관계를 경험한 내담자가 모래상자 치료를 통해 대상적 자기손상과 대인관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래상자치료를 통한 대상적 자기손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담자의 모래상자에 나타난 변화를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었을 때 각 단계별로 일상, 긴장과 갈등,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초기 단계인 일상단계에서 내담자는 3회기에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 피규어를 처음으로 모래상자에 놓았다. 내담자는 어려서 아버지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초등학교, 중학교 왕따로 이어지면서 대인관계 문제, 학교 부적응 등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민폐라고 생각하는 대상적 자기손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기 단계인 긴장과 갈등 단계에서는 자신과 친구, 자신과 어머니를 대극으로 나타냈다. 모래상자에서 자신과 친구와의 관계는 좌우로,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상하로 표현하였다. 자신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자신을 오른쪽에, 편안한 모습의 친구를 왼쪽에 두었다. 자신은 왼쪽을 향해있고 친구는 오른쪽을 향해있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과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내면세계의 불편함,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아래쪽에 어머니를 위쪽에 두어 자신은 위로 향해있고 어머니는 아래쪽으로 향해있다. 어머니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도 분리하여 독립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상적 자기손상이 여전히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러한 감정에 직면하고자 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후기 단계인 변화 단계에서는 자신과 친구를 나란히 놓고 산책하기, 노래방가기, 집에서 놀기 등의 또래들과의 소소한 일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함께 하는 행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내담자는 자신이 친구와 닮았고 친구를 닮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자기개념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아 강도 또한 높아지면서 대상적 자기손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어려서 부정적인 부-자녀관계를 경험할수록 대상적 자기손상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한 이문희(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부-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자기개념이 나타남을 밝힌 안지영, 홍혜영(2022)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대상적 자기손상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경(2013)이 집단모래상자치료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변화를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모래상자치료를 통한 대인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담자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해 청결하지 못한 의복과 불결한 위생상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음을 경험하면서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몸무게 과도한 증가,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은 더욱 악화되었다.

모래상자 초기 단계에서 사람 피규어는 3회기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좋은 사람들을 표현하면서도 “다른 공간에 있다.” 라고 말로만 설명하고 모래상자에 타인을 등장시키지 않았으며 자신은 공부를 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기 단계에서는 자신과 친구, 자신과 어머니를 모래상자에 등장시키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이 모래상자에 나타나고 있으나 긴장과 갈등의 부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친구, 어머니와 관계에서 불편감을 마주하는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기 단계에서는 친구와 자신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같은 곳, 의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8, 9, 10회기로 이어지면서 기타, 음식 등이 추가되어 모래상자를 좀더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 내담자가 친구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유지해나가면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와 모의 돌봄이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유능성에 유의미한 부적상관과 정적상관을 보고한 손성희(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한다는 권연희, 박경자(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모래상자치료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유수연(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모래상자치료는 손상적 부-자녀관계를 경험한 내담자의 대상적 자기손상과 대인관계문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못지 않게 부-자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자녀관계에서 방임, 학대 등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이로 인해 위축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왕따 등의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대상적 자기손상을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래상자치료가 대상적 자기손상과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의 자아를 강화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적 접근으로 모래상자치료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재양육을 경험함으로써 손상적 부-자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모래상자에 자신의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이해를 도울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적 자기손상, 대인관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양적인 변화를 살펴볼지 못한 점이다. 추후 객관화된 검사도구를 통해 양적인 수치를 살펴본다면 치료 효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6). 자기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서울대학생 표집의 자기개념 특성. *학생연구*, 31(1), 11-38.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정서성 및 어머니 행동과 또래 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3-38.
- 김귀남, 김현주. (2011). 자기탐색을 위한 모래상자놀이가 대학원생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5(1), 93-107.
- 김수경. (2013). 지시적 집단모래상자놀이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희, 이세화. (2024).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여자중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정체성 표현에 미치는 효과.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5(1), 59-107.
- 손성희. (2015). 부모-자녀 결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홍혜영. (202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자기거념 명확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통합치료연구*, 14(1), 25-52.
- 오옥선. (2019). 대학생의 모-자녀 간 갈등이 교우관계, 학교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6(4), 1-27.
- 이문희. (2018). 어린 시절 부-자녀관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상적 자기손상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1), 97-120.
- 윤태교, 이지민. (2017). 20대 성인 남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과제와 지기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75-98.
- 조원, 박성민. (2023). 모래놀이치료가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의 과의존 수준과 대인관계문제 및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4(1), 73-136.
- 최희숙, 주영아. (2020). 여대생의 경계성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와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85-610.
- 홍세훈. (2021).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의사사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117-127.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 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Cooper, S. M. (2009). Associations between father-daughter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academic engagement of Agrican American adolescent girls: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5(3), 404-425.
- Han, M. H. (2010). The effect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 the family of origin on child's fear of intimacy on early adulthood: The mediation role of shame. *Korea of Journal of Counseling*, 11(2), 555-570.

- Harter, M. H.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in, M. & Weston, D. (1981). Quality of attachment ot mother and to father :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for establishing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Target, M. & Fonagy, P. (2003). Fathers in modern psychoanalysis and in society: The role of the father and child development. In J. Trowell & A. Etchegoyen (Eds.), The importance of fathers: A psychoanalytic re-evaluation. Londeon: Institute of Psychoanalysis.

원고접수: 2024.07.20.

수정 본 접수: 2024.08.15.

게재승인: 2024.08.31